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illegible]

十一日閣議는午後로

【東京電話同盟】十一日 定例閣議는 寺內陸相以下 各閣僚의 都合으로부터서의 要求이 十一日正午後엽으로 明日午後二時에 開會하기로되엿다

社說
無用한勞力虛費反復
影響한歐洲戰爭와의無益

一

方今 世界는 無用한 勞力의 浪費를 反復하고잇다。列强은 勿論 諸國의 軍備擴張이 그것이다。軍備擴張은 國家의 防禦를 目的한것이라면 반듯이 無用한 勞力이라 할것이 아니오 도리혀 創造的 勞力이라 할수잇다。그러나 國防의 程度를 넘어 侵略을 目的한것이라면 無用한 勞力이라 안흘수업다。그어느 나라나 말로는 國防을 標榜하지 안는이가 업스나、그러나 設使 侵略을 目的한것이라 하되 이에 脅威를 感하는 假想敵國은 反對로 國防을 理由로 軍備를 擴張하고 잇스니 이는 結局戰爭準備가 아닌가。

二

戰爭이 반듯이 나쁜 일은 아니다。無理한 侵略에 對한 正義의 防衛戰을 하는것은 人類의 正義感을 북도둡는 意味로서 倫理的 價値를 가젓고 戰場에 잇서서 全心力을 敵의 征服에 傾注한다는 點은 精神的及肉體的 訓練의 價値를 가젓다。特히 戰爭에 使用된 職員의 發達은 科學發展에 重大한 貢獻이 되지며 國家總動員으로써 戰爭에 當한다는 國民的 意識은 國民의 團體的生活에 莫大한 利益이 될것이다。니체가 戰爭의 價値를 들어 讚美한것은 이러한 理由에 잇슬것이다。

三

그러나 戰爭에 依하야 밧는 反面의 損失을 생각해보라。數百萬、數千萬으로 헤아리는 人類의 死傷은 말할것도 업고 人類에게 幸福을 줄 온갓 財産의 破壞及 生産力의 破壞및 敵을 미워하므로써 生하는 戰爭後의 反感等은 實로 人類의 最大損失이라 안흘수 업다。獨佛은 數百年以來 犬猿의 間에 잇서 幾次의 戰爭을 거듭하야 二十年前에는 世界大戰까지 誘致햇지만 이 敵對觀念은 戰爭後 一層 激成되고 累를 次代에 傳하고잇다。二十年을지난 今日에 옛날戰死者의 子弟들이 互相 戰場에서 相見할것을 기다리고 잇는것을 볼흔 這間의 消息을 말함이 아니냐。

四

人間은 健忘症의 所有者다。歐洲大戰이 끗난後 世界各國은 다시 戰爭을 이르키지 안코저 巴里에 講和會議를 열고、그後 華盛頓에서 海軍軍縮會議를 열고 어듸어듸서 무슨條約을 맷는等 온갓 법석을 햇다。그러나 이 會議와 條約等은 結局 旣成勢力의 維持條約이오、新興勢力의 壓服條約이라하야 獨逸、伊太利等의 破棄宣言을 바다 世界는 다시 歐洲大戰當時의 形勢를 彷彿케 하고잇다。獨逸과 伊太利等은 戰爭으로써 다시 戰爭이 언기를 期하려하고 그러나 다시금 戰爭後에 또 그時의 優敗者의 反感으로 다시 새로운戰爭이 잇스리라는것은 지난 戰爭의 뒤에 今日과가튼 戰爭의 氣運을 釀成한것으로 미루어 알수잇다。人類는 그저 어린아이들이 모래城을 싸코 허물듯이 文化를 創造햇다 破壞햇다 하는 無用한 反復을 繼續할뿐이다。

排日運動終熄까지 自主的行動決意
排日教育을根本的으로打破
外陸海三省根本方針

【東京電話同盟】成都事件에뒤니여 北海事件이 發生한것은 全中國의 排日運動을 가장 明白히 말하는것으로 南京政府가 아모리 排日取締를 言明하면서 旬日이 지나지못하야 中央黨의 煽動에依한 惡質의 民衆排日運動이 發生한것은 南京政府의 所謂今後保障은 一顧의 信을 置하기不能하고 全中各地에 散在하여잇는 善良한 日本居民의 生命財産은 全然危殆에 瀕하여잇다할것으로 日本의 輿論은 依然沸騰되여 九日海軍當局의 聲明에 뒤니여 十日陸軍當局도 聲明을發表하야 排日의根絶에 對한 斷乎한態度를中外에 宣明하엿는데 外陸海三省間에 一致된 根本方針은 左와如하다고確聞한다

一、全中排日의跟蹤은 民衆속에 潛流하는 排日의民族的 感情에도 起因할것이나 其排日[illegible]國策에依하야 [illegible]을 못는것과가틈 一部의計畫的策動에 依하는것이 事實이다

一、따라 排日教育에依한 民衆排日의原因을 根本的으로 打破함에 努力하는同時에 政府內 國民黨部의 言論機關中에存在하는排日機關巨頭에對하야 斷乎한取締를 要求한다

一、南京政府는 排日取締와 敎諭令을 公布하엿스나 아직在留日本人의 生命財産이 完全히 完期되지못하고 惡質의 排日行動이 將來에도 反復될境遇에는 最後의方法으로 日本人의生命財産을 自主的으로 保護하야 南京政府의反省을 促할수밧게업다

現地情勢如何론 陸戰隊도上陸?

【香港十日發同盟】北海事件의現地調査員을 실은 軍艦嵯峨는 十日午前八時十五分 香港出帆 事件現場에 急行하얏는데 北海에는 아직 十九路軍이 蔣介石氏의 撤退命令을 拒絶하고 依然蟠居하야 抗日反蔣獨立宣言을 發出할形勢까지 示하고잇스므로 調査員의 北海進出은極히危險한狀態에잇서 嵯峨乘組將士全員은 자못 緊張하야 調査員一行의 任務遂行에 萬全을 期하려고 悲壯한 決意를 示하고잇다 中野氏殺害現場이라고생각되는 中野氏宅은 北海海岸에 面하여잇스므로 調査員은 北海港에 到着하는同時에 中國官憲의 充分한 保護를 要求할것은勿論 現地의必要에 依하야 嵯峨로부터 陸戰隊를 上陸케하야 一行을 保護해서 徹底的調査遂行을 援助하는 行動을 取할는지 알수업다고한다

中村廣東總領事 十二日東京發歸任

【東京電話同盟】中南中政策安協次로 歸國中이든 廣東總領事 中村豊氏는 北海事件 對策에對하야 外務當局과 妥協한後 十二日午後三時 東京驛發 十三日神戶出帆 秩父丸으로 歸任할터인데 同總領事는 上海着後 直時 川越駐中大使와 會見하고 外務省의方針을 傳達하고 重要協議를 遂한後 香港을거처歸任 川越大使의交涉과並行하야 廣東省政府當局과의間에 側面的折衝을 行할豫定이다

天皇、皇后兩陛下 來十四日御還幸啓

【東京電話同盟】時局을 御憂慮하압시와 今夏를 終始 葉山御用邸에서 지내압신 天皇陛下께압서는 御多端하압신 御政務中 炎暑下에서 玉體의 御健康에 努力하압시와 益益御壯健하압신 것으로 拜承하압는바 來十四日 皇后陛下御同列로 午後一時五十分 葉山御用邸 御出門 同二時五分 逗子驛 御發車 三時五分東京驛 御着車하압시와 五十餘日만에 宮城에 御還幸啓하압실터를 十日 御吩咐하압시엿다

皇太子殿下 葉山에行啓

【東京電話同盟】那須御用邸에서 御避暑中이시든 皇太子殿下께압서는 十日 御兩親陛下께압서 在하압신 葉山御用邸에 行啓하시엿다 殿下께압서는 御弟宮義宮殿下、御姉宮 順宮殿下와 함께 午前七時四十五分 那須御用邸御出門 午後一時二十分 逗子驛御着 葉山御用邸에 入하시와 四十數日만에 天皇 皇后兩陛下께 御對面하압시고 御團欒하시엿다고 承聞된다

◇西班牙叛亂畫報 = 首都마드리드北方五十키로의 地點에잇는 과다라마山을 둘러싸고 政府軍叛亂軍사이에 激戰이 展開되엿다 [illegible]은 叛亂軍의 報道한바이어니와 寫眞은 政府軍步兵隊一兵이 政府軍의 射擊을바더 너머지고 또 一兵이 兩다리를 하날로 올려보내며 자바지는 씬이다

旣定治水計畫은 一旦抛棄키로決定
綜合的再檢討開始

內務省에서는 今回의 大災害에 鑑하야 將來의 治山治水事業에 根本的 再檢討를 加하기로되어 治山治水에 關한 將來의 旣定計畫을 一旦 抛棄하기로 되엇는데 이結果 明年度分은 다시 案을 再考할必要가잇서서 十月頃까지에 [illegible]委員會를 設하야 審議한後 明年度豫算에 追加要求하려는바 이에 因하야 治水關係 明年度[illegible]는 一旦 [illegible] 四千[illegible]萬圓、明年度以降 三個年繼續事業으로 計畫된 地方振興 土木事業費는 明年度一個年中止、四百萬圓에 削減되고 事業內容은 治水計畫과는 關係업는 市街地道路、上水道、地方港灣에 限定되고 그外에 河川改修와 道路事業費는 將來에 關係잇는 一部를 남기고 大部分 一旦 削除되엇스나 明年度治水對策費는 此等을 基礎로 綜合的 再檢討를 加하기로 되엇스므로 總額 三千萬圓程度에 落着될것이다

地方財調交付金 急速實現은困難

地方財政의 調整을 目的으로한 地方財政調整交付金制度에 對해서는 內務局에서는 地方稅制改正과 同時에 今年度부터 實施[illegible] 결과를 기다려 再檢討를 加할 必要를 느끼고 財源其他調査未了대로 今日에 至하엿는데 右交付金制度를 實施하지 안흐면 地方稅制改正은 有名無實이 되므로 內務局에서는 明年度부터 꼭 實施할 意向으로 調査를 進行하는一方 內務省案의 推移를 注目中이다 內務局原案에서는 地方財政調整交付金 一個年所要額은 大體五六百萬圓이엇스면 充足할모양이오 이財源은 現在 地方에 交付되고잇는 國庫補助整理와 第三種所得稅附加稅 創設或은稅率改正等으로 捻出할 方針인데 이實施에 當해서는 相當한 困難을 伴할 모양이다 卽 今年度부터 實施된 地方稅制改正은 右交付金制度와 不可分의 關係에 잇는때 이財源으로서 地方으로부터 國庫에 移讓된 稅源은 하나도 업스므로 自然 他에 財源을 發見치안흐면 안될터인데

一、現行國庫補助整理에 依하며 三十二萬圓(昭和九年度)의 內譯은 土木補助二百九萬圓、勸業補助八百八十七萬圓、敎育補助四百二十一萬圓、衛生補助七十四萬圓、社會事業補助十二萬圓 [illegible]八萬圓 其他十一萬圓으로 모다 이미 充分히 各道의 財政狀態를 考慮하야 按配하야 이以上의 整理削減은 極히 困難한것

一、第三種所得稅附加稅創設(地方稅로 創設하야 이를 一旦 國庫에 너헛다가 各道에 分配하는것) 又는 稅率引上은 가장 조흔 財源이나 [illegible]을 招來한다는 非難이 잇다 그어느것이나 相當한 困難을 伴하므로 이實現까지에는 相當한 迂餘曲折을 보게될것이다

英、重大關心으로써 北海事件推移注視

【上海十日發同盟】北海事件에對하야 英國은同地가 香港에 가까운 關係上 事態를 자못重視하고 推移如何에 依해서는 英國[illegible]에도 影響하는바 念慮하야 各方面의 情報蒐集에 努力中이다 一方 香港方面과도 緊密한 連絡을取하야 北海에잇서서의 日本軍艦의 動靜及 中國側의 態度에 重大關心을 가지고잇다 成都事件에서는 數日間 沈默을 지키고잇든 英國系의노-스·차이나·데일리뉴스紙가 北海事件에對하야 即日 社說을 揭載하고 中國側의 排日政策으로 如斯한事態가 發生한것이라고 英國側의 關心을 示하고잇다

調査를妨害하면 斷乎實力發動

【上海十日發同盟】北海事件勃發과 同時에 急遽 同地로 向한 第三艦隊所屬砲艦 嵯峨及 十三驅逐隊若竹은 十一日朝 北海到着의 豫定인데 事件의 原因과 그背後關係에 關하야 徹底的調査를 開始하기로되엿다 그런데 北海는 舊十九路軍의 排抗日主張은 根據地로 此等의 地區에 浸潤하여잇서서 萬若 現地調査를 妨害하는일이잇스면 斷乎 實力을 發動하야 獨自의 힘으로써 眞相을 究明할 決意를 가젓다

十九路軍撤退要求에 廣西、逆襲的回答

【廣東十日發同盟】蔣介石氏의第十九路軍北海撤退要求에 對하야 廣西側은 아직 回答을 하지안흘뿐아니라 如左한 中央軍撤退를要求하는逆襲的回答을보내엇다 李宗仁氏의 廣西綏靖主任就任과함께 白崇禧氏의 進退는 蔣介石氏가 抗日强行을 爲하야 中央軍의 全部를 撤退하고 愛國民衆運動及 愛國言論의 解放實行을 公約하기까지 留保한다

『民主主義思想은 獨逸國民의大敵』
일즉獨逸도이것때문에滅亡
나치스黨大會에서 히틀러總統演說

【뉴른베룩九日發同盟】나치스黨大會는 九日正午에 總開하고 히틀러總統은 萬雷의拍手裡에 登壇하야 國際政局의 危機를 指摘하고 民主主義를 排擊하야日 人類는 바야흐로 未曾有의大動亂前夜에 直面하여 잇는것이아니라 實로大動亂의 渦中에 싸혀잇다 何人이나 이儼然한 事實을 疑心할수업다 地球上의 各國은 바야흐로 견될수업는 緊張에 싸혀잇다 過去百五十年前 世界는 佛國革命의 戰慄할 經驗으로 根底부터 震撼되엿다 바야흐로歐洲는 動亂大波에 휩쓸리려한다 그리고 이風潮는 全歐洲大陸의 新經濟分野에도 浸潤하야 資本主義는 漸次로 問題化하게되고 自由及友誼的精神은 漸次衰退되고잇다 所謂 데모크라시에 依하야 眞正한 國家가成立된적이 잇는가 일직 帝國도데모크라시때문에 分裂破壞되지아햇는가 데모크라시는곳 國家의大敵이다 다음에 히틀러總統은 猶太人을 攻擊하고 볼쉬비즘을 排擊하야日 過般 猶太主義下에 西班牙國內에서 暴發된 事態는 果然如何한가 西班牙國會의 他國의 輸入品과를 混合한 猶太主義는 絶滅과 破壞의 慘禍를 具現하지안햇는가 萬一西班牙國內에 사베트政權이 樹立되드라도 結局 恐怖狀態를 現出하고야말것이다 나치스는 實로 民主主義와 無政府主義로말미아마 滅亡에 瀕한 國家에 新權威를 樹立할 歷史的使命을 負擔하고잇다 바야흐로 暴力行使時代는 지나고 共同努力에依하야 建設에 邁進하는 時代에到達하엿다 即建設的發展의 新時代는 政治領域뿐이아니라 經濟的社會的分野에도 黎明을 告하게되엿다

米도驅逐艦을保有
萬事는日本의態度如何로決定
今長官海軍政策을闡明

【華盛頓九日發同盟】스완슨海軍長官은 九日登廳後 新聞記者와의 會見에서 米國政府의 海軍政策을 闡明햇는데 來年度海軍大演習에 關하야 가로대 來年五月부터 六月에 걸처 東太平洋에서 海軍大演習을 擧行한다 演習範圍는 알류샨과布哇群島를 中心으로하는데 要컨대 海軍將兵을 此等水域에 익숙케하는以外에 他意는업다 다음驅逐艦、潛水艦超過數保有에 關한 日本政府通告에 對하야 日本政府가 超過潛水艦을 保有하는結果 倫敦條約違反을 誘致할것이다 그러니 日本政府가 어떠케할것이냐가하는 確實한 [illegible]의 [illegible]을 十四時로 [illegible] 日本[illegible] 一九三七年四月一日까지에 新條約의 實現이 서지안흐면 政府는 아모런 措置도 取치안는다 如何튼 米國政府도 [illegible]를 保有하게될것이다 英國政府가 에스카레이터條項을 援用한以上 米國政府가 이를援用하드라도 條約違反은 되지안흘것이다 또 大西洋分遣艦隊問題에 關하야 反對를 表明하야가로되 西班牙內亂에 關하야 大西洋分遣艦隊復活을 主張하는이도잇스나 米國政府가 脫退한 歐洲政局에 솔러드는것은 滋味업다 大西洋分遣艦隊設置는 反對이다 最後로 主力艦二隻의 建造에 言及하야日 主力艦二隻의 建造에 關하야 計畫은 完了하얏스므로 루즈벨트大統領의 署名裁可를 엇는대로 卽刻 起工할터이다

金屬工罷業에 當局、調停에進出

【마르세이유九日發同盟】金屬工의罷業은 漸次猛烈하야 參加人員一萬五千人에 達하고 各工場을 占據하야 氣勢를 올리고잇다 工場主側은 罷業團이 工場으로부터 撤收치안흐면 交涉에 不應하겟다는 强硬態度를 取함으로 當局은 調停에 着手키爲하야 九日勞働者代表를 招致하고 要求條項을 聽取하엿다

不干涉委員會 第一回會合開催
一般討議後提案提示

【倫敦九日發同盟】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調整委員會第一回會合은 九日正午英國外務省로카르노室에서 開會하고 議長을 選擧한結果 모리슨英代表가 當選되엿는데 議長에 就하야 調査委員會의討議範圍에對한 一般討議를行한後 左와如한 提案이 提示되엿다

一、不干涉協約案을 有效케하기 爲하야 各國政府가 取한立法上及 其他의 手段에 對하야 아직報告를 提出하지안흔 政府는 速히 其報告를提出할것 右提案을 各國代理는 各本國政府에 通達할것

一、不干涉協約案을 成立식히기爲하야 佛國政府와 各國政府間에 交換된 公文書를 各國政府의 諒解를 어더公表할것

一、次回會合은 可及的速히 開催할것

그리고 伊太利大使그란지大使獨逸代表 히텐부루크公은 各其各國政府에서 發布할 不干涉令을公表할것이냐에 對하여는 態度를留保하고 各本國政府의 回訓을求할量을述하고 短時間에 散會하엿다 次回는 모리슨議長獨自의 判斷으로써 召集하기로되엿다

聯盟經濟委員會 經濟會議提唱決定

【쥬네브九日發同盟】國際聯盟經濟委員會는 九日午前 聯盟新會館에서 定例會議를 開催하고 世界經濟의 危機打開策에 對하야 協議를遂한結果 世界經濟會議를 提唱하기로 決定하엿다 其要旨는 左와如하다

一、刻下世界經濟의 危機를 打開키爲하야 世界經濟會議를招集할事

一、右會議에는 英佛獨白伊各國을招集하야 特히通貨安定、通商妨害除去、淸算協定等에對하야 協議할事

로카르노會議招請

【倫敦九日發同盟】英國政府는來十九日 로카르노條約締約國會議를 開催하고 新體制에 對하야 協議를 遂하기로되여 獨伊佛白의 四國에 招請狀을 發하엿다한다

人事·集會

◆李恒九男(李王職次官)東京邸參觀次十日京城發渡東

夕刊後市況 十日

◆大阪 短期 前後
大新 六七〇〇 (一〇高)
新新 一七〇八〇 (不變)
日產 八〇八〇 (一〇低)
東新 一二三〇 (二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一五〇〇 先限 七一三〇〇
◆神戶 人絹 後引◆
當限 六二七〇 先限 五九九〇
〇訂正 夕刊數字欄 大阪期米先限後止 三〇·九七은 三〇·六三의誤植

早稻田大學 校外生募集

校外生은 本大學發行의 講義錄에 對하야 일하면서 自宅에서 工夫할수잇는 學徒이다

資格 小學校를 나왓슬뿐으로 上級學校에 갈수업는분을 爲하야하는 校外教育이므로 누구나 조타 左의 講義錄에 對하야 工夫하는사람은 모다 本大學의 校外生으로 待遇한다

學費 一個月一圓內外로 講義錄은 每月一冊式 付送한다。中、商、女의三科에는 每月附錄雜誌도 添附한다。

通學 하루도 通學을 하지안는다、일의 餘暇를 利用하야 하로에 한時間이나 두時間式 工夫하면 充分하다。어떤 講義錄이던지 一年內外로 修了한다。

特典 修了後는 銓衡한後에 本大學專門部에 入學할수잇스며 其他여러가지特典이잇다

內容見本 詳細한것은 葉書로希望하시는 講義錄을써서 內容見本을請求하야 보십시오 곳 請求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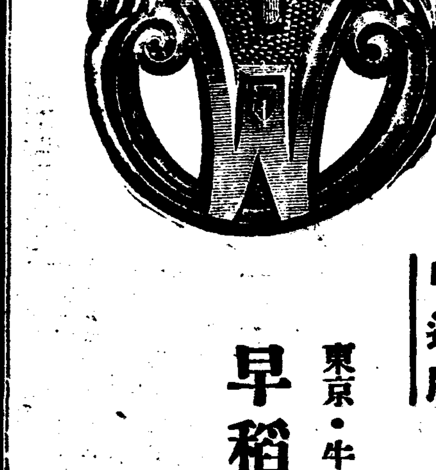
早稻田大學講義錄

中等學校程度

講義	期間·學費
中學講義	前期·後期各一ヶ年 學費月一圓
商業講義	一ヶ年半 學費月一圓
高等女學講義	一ヶ年半 學費月一圓
電氣工學豫備講義	一ヶ年修了 學費月一圓

專門學校程度

講義	期間·學費
政治經濟講義	一ヶ年半 月一圓卅錢
法律講義	一ヶ年半 月一圓廿錢
文學講義	一ヶ年半 月一圓廿錢
建築講義	一ヶ年半 月一圓卅錢
電氣工學講義	一ヶ年半 月一圓卅錢



光輝잇는 早稻田大學校外生의 帽章

申込所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illegible] 電話牛込[illegible]

白頭山行

眼下에千里長林 玄玄渺渺 一碧萬頃

三日三夜 二百里長程을 突破

● 처음 瞻瞰의 이 歡喜!

李相昊 記

이층다락에만 올나가도 길바닥을 한번내려다볼라하고 남산중허리만올라가도 장안을 구버보는 맛을볼라하고 북한산(北漢山)에만 올라도 근기(近畿)를 한눈속에 거둘라고할터인데 사흘동안을두고 이백리길을걸어 칠천척노피를 올라와서것마는 아직한번 열자노피라도 내려다보는 구뷔가업시 숲속에서만 헤매든우리들인지라 약속도업시 예고도업시 천평(天坪)천리벌이 한목으로 눈아래버려지니 이것이 무슨영문인가시퍼 입이떡벌려지고 정신이 황해질판이다。 날세도 더바랄수업시 맑게개여 눈어림은 끗업시터젓다。하늘끗과 맛물고잇는 저숲끗이 우리가떠나온지점이라면 사흘도 걸려온셈이요 이백리도 넘어왓을 은폭。어느땅에잇는 무슨산인지도모를 산봉만 가물가물되는 산들이 북으로는 만주땅으로부터 시작하야 동으로 함경북도를 내려걸처 부유스름하게 하늘끗과어 해를두른 이쪽은 외통이숲이요 모다가나무다。지금까지써온 수해(樹海)란말은 결코형용사가 아니요 단순한 명사이다。방금도 아득한수평선 아니 지평선우에 실오리가튼 연기를 품는 기선이 가실가실 떠오는것 갓지안흔가。 나는지금 동서가이백여리 남북이오백여리되는 숲으로된 벌판을 한눈동자속에 거두고잇다。

초록비단바다로 접어진하게 버려진숲우에 주간주간 손바닥만큼해보이는 머리에 흙떠가튼흰점은 어제 그적게 거의 하지간동안쉬여도고나온 황막한 최근겟지 눈아래되는 구름장의그림자가 널비로처면 서울시가의 다섯목 여섯목곳이나될 경우정을 이곳저곳 군대군대처두엇다。 백리어림을 한목으로내려다보고 잇스니 구름그림자라말로 다못칠천척노피되는 이곳에서 오룩한표현을 하겟지마는 저그림자 속당처에서는 날세가호리다고할 것이아닌가。 저편으로 내려다뵈는 저구름 아래는 구름장과 숲사이가 부유스럼하게뵈고잇스니 아마도 비가오는모양이지。비오는자리 저뒤로 비체쨍쨍난곳은 오색령롱한 서기(瑞氣)가빼드니 갓가이가보면 무지개일터이지。

○……○

눈아래뵈는 이어림에 사람사는 시가지가 여러곳이 잇다면천기에보라도 해주고지픈판이다。 그늘진곳은 흐리고 빗난곳은 개이고 부유스룸한곳은 비가오고 저기압 고기압을 헤아리지안어도 일목요연하게 눈아래 뵈이지 안는냐。 여기만해도 천상세계라 따우세계와는 개념(槪念)이 달려지고 말이 뒤박구인다。 저곳에서는 우리지방은 날세가 호리다。우리지방은 비가온다。우리지방은 날세가개엿다。고할형편이면 여기에서내려다보는 우리가하는말는 손까락끗치 굵어가르처 가리킨듯이 방석어린만한 저곳은 구름그늘이져고 손바닥 어라만큼보유스름한곳은 비가오고 신문지한장폭되게 희끗한 저곳는비체나구나!할터이지。이말은 이아니라 오백여리어림을 눈아래처든 무두봉(無頭峯)칠천척 노피에서 보는대로 옹기는말이다。 문자그대로의 개관(槪觀)세계는 이곳에올라와서야만 구경을할것이다。

신용하고도 불일이지。사흘동안을두고 줄곳걸어온 칠천척을 올라온들인데 언제 칠천척을 올라왓담。백두산의 위대하다는 설명은 오로지 이한마듸로 다할것이다。

아직도 천지(天池)까지는 이천척이 더남엇다。거기만올라가면 오늘이야기는 범우경한 사람에게 도기이야기밧게 안되겟지。 한목으로 신이난 우리들은 다리아픈것도 언제 이저버리고 두마장도 안남은 온돌로 영지를 차저 천막칠 말뚝도 기운차게 박엇다。

(사진은무두봉과 고산식물)

水害地金海邑에 第三次豪雨暴注

저번에터진虎溪川堤防으로또浸水

降雨繼續·人心不安

【金海支局特電】수해지김해(金海)에는 십일 오전세시부터 또 다시호우가나리기 시작하야 오전열한시까지의 우량은 칠십팔미리에 달하엿다 저번물에 터젓든호계천(虎溪川)제방으로는 또다시 물이들어오기시작함으로 김해읍 사무소에서는 주민에게주의를 시키고경계중이나 비는도모지 멋지안흠으로 제방근처 부락인동상리(東上里)주민들은 특히 전전긍긍하는 상태이다 연거퍼세번재습격하는 물난리에 주민들은 이호계천의근본적개수공사를 열망하고잇다

咸安에도또豪雨

風餐露宿罹災民困境

【郡北支局特電】지난구일 오후열시부터 내리기시작한비는 함안(咸安)일대를 수국화시키엿다 저번수해에 놀랜가삼이 아직안정되지못한 리재민들은 창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잇슬뿐이다 의령(宜寧)군에 가는자동차선로는 불통되엿다 그래서 지금까지 풍찬로숙의 생활을 계속하야오는 리재민의 상황은 차마볼수업는 현상이며 비는 지금도 계속하야 오는중이다

純眞한童心

永登浦興化幼稚園

【永登浦】리재지에서 기한에 떨고잇는 동무들에게 한벌의옷 한푼의 돈이나마 보내지안코는 안위를밧지못하겟다는 순정의 동심에는 다만감격의눈물이 잇슬뿐이다 시내 영등포장노교회(永登浦長老敎會)경영인 영등포흥화유치원(興化幼稚園)은 원아 오십삼명으로 금번 대홍수로백만 생령의 리재동포중에는 벌거숭이의 어린동무들도만허서 그귀아선상에서 우는소리는 내귀에도 들님니다 하며 염마를 줍나 모으게된 옷 십점파 돈 오원로십구전을 지난구일보모 고신근(高信根)(二二)양과 원아대표 박형인(朴亨仁)(七)군이 본사영등포지국으로 차저와서 기탁하얏다

河東에暴雨

蟾津江增水

【河東支局特電】지난구일부터비가오기시작하야 섬진강(蟾津江)물이 증수되여 연안일대는 수국화하엿다 그리하야 저번홍수로 전멸되다시피한 농작물들이번비로 아조전멸되엿고 피난민

들은 전전긍긍하는중이며 비는 지금도 계속하야 물은 작꾸중수되고 교통도 두절되엿다

趙俊鎬氏 一千圓

시내황금정이정목 동아증권미두주식회사(東亞證券米豆株式會社)사장이요 인천해안정(仁川海岸町)삼정목에서 단독으로 미두취인점(米豆取引店)을 경영하고잇는 조준호(趙俊鎬)씨는 이번수해구제의연금으로 금천원을십일본사에 긔탁하여왓다 (사진은 조준호씨)

觀水町會活動

부내관수정(觀水町)정회에서는 십일다음과가티 본사에긔탁하여왓다

▲現金壹百圓及衣服三十點 洪正求氏

▲現金五拾圓及衣服五十點 柔根據女史

▲現金參拾圓及衣服八十二點 金淑卿女史

▲衣服八拾五點 林仁淳女史

三井、三菱에서 各其二萬圓

"朝鮮社協"에寄托

연거퍼두번이나 남조선일대와 강원도지방을 엄습하야 칠천에가까운 인명피해와 일억오천만원의 재보를 빼아서가버린 탁랑의 폭위(暴威)는 생각만하여도 소름이 끼치는일이며 백만에갓가운 리재민이 닥처오는 기아선상에서 떨고잇든 참상은 듯기에도 참혹하엿이니 동정의봉화(烽火)가 어제원근을 가림것이며 적성(赤誠)의발로가 해내해외에가 듯찻것이 오히려 당연한일이 아니라!

정열로의 재계를 이분하고잇다 하여도 과언이아닐 삼정(三井) 삼릉(三菱)등두왕국(王國)에서는 각각 십일조선 수해의연금으로 이만원씩을 조선사회 사업협회에기탁하엿다고한다

生活苦로— 男妹를殺害

미련한어미에"執猶"

어린자식들은 배가고파울며 보채고 살림은가난함을 비관한끄테 자살할목적으로 자식들을 하나는업고 하나는안고 물에뛰어들엇다가 자식들만죽이고 살어나와서 살인죄로 법정에서게된 가련하고도 경솔한 어머니가잇다 강원도홍천군홍천면갈마곡리(洪川郡洪川面葛馬谷里) 리유안(李幼安)의안해 김라례(金羅禮)(三二)는 지금부터십일년전에 그의남편과 결혼하야영희(英姬)라는네살먹은딸과 해수(海水)라는 한살먹은 아들을낫고 사러왓스나 항상살림이군색하야 고통을늣기고잇든바 어린애가 젓이업서 몹시도보채고우나 돈이업서 우유도사서줄수업슴을 비관하고차라리 모다죽어 버리는것이 편하겟다는 졸급한 생각으로지난칠월십일 아침에 영희는등에업고 해수는 품에 안흔다음자긔집근처에잇는 연못에 뛰여들어가서 어린것들은 곳죽엇스나그는 죽지못하고 다시 기여나왓다고한다 이것이경찰에 탐지되야 그는 살인죄로 법정에서게된것인데 십일경성지방법원형사부 중촌(中村)재판장은 주견(酒見)검사의 징역사년구형에대하야 이년징역에 삼년간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리엿다

鮮于梨女史歸國

平壤崇義女校校長

卅七年間의偉大한功績남기고

有志主催로送別會

【平壤】숭의(崇義)의 동산을창립한 조선녀성교육계의 대은인 선우리(鮮于梨)교장이 이달십팔일경에 삼십칠년동안이나 정든 평양을떠나 고국으로 영원히 가기로되엿다 선우교장은 일천구백년 삼십사세의 청춘의몸으로 녀자선교사임명을 바더가지고 조선에 첫발자욱을 드려노아 삼년동안조선말을 배호후 일천구백삼년에는 평양에 녀자중등교육긔관인 숭의녀학교를 창립하고 교장이되여 이래삼십칠년동안을 조선중견녀성 교육에 전심전력하는동안에 청춘의 황금시대를 완전히 희생해버리고마럿다 선우교장의 부단의노력과 철석가튼 정신은 당시에 완전히 정복하여 숭의녀학교는하여금 일의존재와 성가를날리 조선은 물론전세계에 알리윗것이다 동선우교장은 변로로인하여 오는 교장의직을현재교장 소안엽(蘇安燁)씨에게 임양해고 금년일월십구일 선교만기정년(宣敎滿期停年)이 되엿스나 그래도 숭의동산을 조용히지키고 잇섯고소안엽교장의 귀국중 교장사무취급에 임명되엿섯스나 신사불참배문제로 교장사무취급을 당국으로부터 취소당하고 마럿다 과거 삼십칠년동안 조선사회에 허다한공적과 족적을남기고 귀국하는 선우교장의 은혜를보답한결 여생의 다복을 빌고저 십일오후여섯시부터 화신식당(和信食堂)에서 선우리교장의 송별회를 사회유지들의발긔로 개최하기로되엿다 떠나는 선우리교장의 략력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鮮于梨氏略歷

▲一八六六一月二十九日 米國아이오와州 페얼필드市出生

▲一九〇〇年 宣敎師被任 京城到着

▲一九〇三年 平壤崇義女學校創立

▲一九〇四年 同校長被任

▲一九三一年 同校長 辭任

▲一九三五年八月校長事務取扱任命

▲一九三六年一月二十二日校長事務取扱取消

▲一九三六年一月二十九日宣敎滿期停年

倉庫法違反者處罰

보통고깐에다가 휘발유를 저장햇다가 벌금무장정이 잇다— 부내강긔정(岡崎町)구십팔번지송전상회(松田商會)—가명—에서는 그상회소유인 청엽정(青葉町)삼정목오십팔번지 보통창고에다가 지난 오월초순부터 석유와 「깨솔린」를백쉬혼 상자를 저장해오든것이 요지음 소관룡산서(龍山署)에 알리바되여 아호렛날벌금삼십원의 처벌을바덧다

三南水害罹災民 北朝鮮移送準備

【全州】금번전북도풍수해에 이만여리재민을내여 못하 각방면에서 구제에노력중이라한은 그보한바잇섯거니와 금번도내 피해에극심한 완주(完州) 무주(茂朱)량군에서는 위선 세농민중일백삼십여가족을 각각북조선 로동시장으로 이송키로 방금도당국에서 일선중이라는데 완주군에서팔십여가족과 독신오십여명을 라진항(羅津港)으로 무주군에서는 오십여가족을 유선탄광(游仙炭坑)으로 금광오순경에이주(移住)케하려라는데 우귀이주자는 여비외 전북도청으로부터한가족에게십원 단신이주한사람에게는삼원식의 보조를하리라고한다

恒久的救濟策을 現地에서絕叫

慶南道廳의救濟費支出은

今日까지六十二萬圓

【釜山】경상남도에서는 금번의풍수해에대하야 응급구제비로지출한 총금액이 작일까지에 륙십이만칠천이백구십원인데 그중직접으로 리재민을 구제한금액은 사십칠만칠천칠백팔십칠원이여서 도내총리재민 사십팔만명중시급히 구제를요하는 리재민이 최소한도로 추산하드래도 이만호에십만명은 달할터이라 일호당 이십사원약이요 일인당 사원이요 모든살림을 모조리일허버리고 알몸만남은 그들의 구제비로서는 너무나소액이여서 그야말로 홍로점설격에 지나지 안흠으로 일반리재민들은 항구적구제책을 시급히 강구하라고 절규하고 잇다는데금번 당국의 태도가 주목되다하며 지출된구제비의내역은다음과갓다

弔慰金	三五五六〇圓
罹災民收容設備	一九八〇三圓
小屋掛料	二一二五九〇圓
炊出費	五六一二五五圓
[illegible]慰問金	四八七九五圓
食糧費	七四九九四圓
醫藥救療費	一五九二二圓
蔬菜種子配給費	三六七〇圓
應急防水費	七四五〇一圓
道路應急修理費	七五〇〇〇圓

點點에매친同胞救濟의精誠 —寫眞上으로부터 攻玉普通學校 紅把、杏村町會 八判町會 孝悌町會 新設、塔洞町會 [illegible]町會

東京商品鮮滿進出紀念大卸賣大會

主催 海外通信社 (東京市神田區佐久間町二ノ一)

後援 東京商品鮮滿進出同盟

一、大卸賣出方法

一、取引員은모도聯盟店員等의名目으로 規定價에依함 契約은店別로請求할것

二、取引員全部現金引換으로代引의境遇는三割以上의內金을要함 內金업는境遇는如何한것이든지出荷치안음

三、顧客의便宜를圖하야聯盟店等은注文品의合送을함

四、運送上責任은가어게하기爲하야注文은荷爲替附名運送店、客車便又는貨物便 汽船便 小包便인것을一切明記할것

五、問屋에서受取한仕切書는偽受後곳東京神田區佐久間町二ノ十四海外通信社로急送할것 本社는그것을引換하야景品을即時贈呈함

六、副賞進呈에際하야仕入額에違算이생긴境遇는問屋仕切書에依함

七、店印업는이의注文은一切拒絶

八、出張販賣又는期間以外의分은此限에不在함

九、賞品은左와如히定額마다進呈함

十、注文時는반드시記念賣出分이라고朱書할것

贈賞景品進呈方法

御買上高(各店通算)

五十圓以上에付 上等商用算盤一個

百 五十圓 〃 目覺時計 一個

三 百 圓 〃 高級手提金庫一個

五 百 圓 〃 勸業債券 一枚

七百五十圓 〃 額面廿圓三千圓割增付 高級ラヂオ 一台 時價四十五圓

大卸賣大會期間

自 昭和十一年九月五日

至 昭和十一年十二月卅一日

金庫錢箱 手提金庫 分銅 秤 製作發賣元 國松商會製作所 東京市淺草區小島町一ノ廿七 電話 淺草七一二四番 振替東京三六〇五九番

羅紗 綿布 既製品 卸 三上商店 東京市神田區岩本町十三 電話 浪花五二七番 振替東京三一二四一番

ミクニ金庫 手提專門 製造元 清水手提金庫製作所 東京市本所區緑町二ノ二〇 電話 本所二七五四番 振替東京 四八四四番

鞄、袋物(財布) 各種 製造問屋 大谷新德商店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三丁目 電話 浪花八六六番 振替東京三二四七七番

羅紗 綿布 既製品 卸 今澤商店 東京市神田區豊島町九 電話 浪花四九二一番 振替東京一三五八五番

キセル 袋物 雜貨卸 小宮本店 東京市日本橋區横山町一ノ五 電話 浪花二八〇四番 振替東京一五六六七番

羅紗 綿布 既製品 卸 岩淵商店 東京市神田區豊島町九 電話 浪花二五四六番 振替東京二七九一四番

ワイシャツ カラー 洋裝附屬品 雜貨卸商 細谷八郎商店 東京市日本橋區横山町八 電話 浪花五〇一九番 振替東京七二四五八番

作業服 綿布 洋服 學生服 丸宇商店 東京市神田區岩本町電停前 電話 浪花一六三一番 振替東京八四二二一番

軍手

이는자리업는軍手의 製造家募集

ツギメナシ軍手 カガリナシ

希望하시는분은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 八十四番地 常盤商會支店에照會 또는乞來談

東京市神田區五軒町九の一 ツキメナシ軍手發賣元 常盤商會本店 電話下谷三三七一番

Meiji 絕對安心할수잇는! 明治の掛時計 示時正確 價格低廉

九月九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時半、午後一時半、六時半)

◆M、G、M超特作映畫 우리들의꿈은드듸여實現이되엿다 滿面의人物이산채로舞臺우로당신의눈아프로뛰여나오는기막히는 뛰여나오는映畫 (立體映畫)

◆M、G、M特作映畫 總天然色 모던東京

◆M、G、M超特作映畫 마나로이스펜서도레시主演 諾(애스)?否(노)? 漫剌한마나로이의新作이왓다。스마트하고도新鮮한近代映畫、애스?노?새로운사랑의技巧에三六年度로한가지流行이된新語!

◆新興키네마提携第一回提供 高田稔平로超特作映畫 牛原虚彦監督 高田稔 主演 五五の春 五五、二十五의그들의靑春과學窓生活과다시새로운社會에오를때까지喜悲相交된名作品

◆유나이데트社超特作映畫 난시캐롤、찌레이몬드主演 薔薇色遊覽船 짜스、춤、상편을가득실코大西洋을건너가는薔薇色放送船!

朝鮮日報社 釜山支局 長電話釜山二八九七番

團成社

昔も 今も 効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え薬(시찌후꾸 하에구스리)

効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잘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價 一週分廿五錢 二週分五十錢 三週分一圓卅錢 五週分二圓 送料十錢 海外四十二錢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 · 電南七二九

江華、金浦、仁川을中心 朝鮮酒販賣統制

會社組織코競爭防止

【仁川】인천세무서관내가경성부 확장과한가지 배이상확장되엿다 이에따라 정정선하야지는것은일반 양조업자들의 경쟁이심하야 약주(藥酒)와 탁주(濁酒)등의공정가격은 전연무효가되고 비밀리에가격경쟁을 하며 또는 도매에는외상을노아 피차에 경영난에잇슴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든 동세무서에서는 동관내의 양조업자를중심으로 조선주판매주식회사를 창립하엿다는데 이후로는경쟁이업슬것은물론 양조장에서도 판매에는전연관계치 아니하고 양조만하기로하고 매매는 회사에서하기로되엿다는바 총자본이십만원에 초대역원은 다음과갓다한다

取締役社長 崔炳斗 副社長 眞治 專務取締役 石川 取締役 金東熏 金德允 (以下略)

自動車에轢傷

구일저녁일곱시 이십분쯤되여시내정동정(貞洞町)배재고등보통학교교장 "아펜설라"씨가 경제일백이십사호 자동차를 운전하야 태평통으로부터 남대문을 향하야돌리다가남대문안 "꼬스톱"에서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칠백칠십일번지 리재세(李在世)(三七)군의롱안재전거와부듸치 피해자는고부근 "세부란쓰"병원에입원 치료중이라고한다 소관본정서원이 출동 현장을 상세히조사한 결과 과실은 쌍방에다가리잇는것이나 전기리재세는통과리문으로그날을 사려가는사람으로 가해자는 그의따한사정에 동정하야 완치될때까지의 치료비를 전담하기로 하엿다고한다

中國人麻雀黨

안동현(安東縣)출생으로 봉래정(蓬萊町)에 류하고잇 중앙려관(中央旅館)에 투숙하는 중국인 장홍모(張鴻謨)외 서소문정(西小門町)구번지중국인끼리 마작(麻雀)을하다가서 발각체포되엿는데 대문서원에게 현장에서 도망하여 동류세명은 장가는 도박자금을 벌엇스며 입건하기로하엿다한다

求職者千百五에 就職은三百卄名

경성부 직업소개소에서 팔월 한달동안에 취급한바를보면 구직자(求職者)수는 일천일백오명이엇는데 취직자(就職者)수는 겨우 삼백이십명이엿다 그런고 구인수(求人數)는 [illegible]명이엿다 구인수는 작년팔월에 비하야 일백이십사명이적고 구직자는 일백신룩명이 적으며 취직자는 삼백구십명이나 적다

本社接受水害救濟品 (九月十日現在)

物品合計 四萬四千六百十四點
白米合計 四俵七斗三升九合

新設町塔洞會

衣類 二百九點 白米 七升四合

金鍾泰 二點▲吳在成 一點 李台夏 二點▲姜弼俊 三點 吳寅圭 一點▲柳宗根 二點 金壽安 二點▲安永根 三點 申鎭永 一點▲朴申喆 三點 崔永植 二點▲李元求 一點 崔德俊 二點▲金弼洙 二點 金玉秀 一點▲朴勝圭 三點 李完根 三點▲文啓錫 二點 朴貴興 二點▲金白歡 一點 金光漢 一點▲李東敦 三點 李仁榮 二點▲宋連顯 二點 馬在鉉 二點▲李致相 五點 任公允 一點▲金文壽 三點 方熙鼎 二點▲金壽根 一點 柳濟鳳 一點▲孫八順 一點 李雲一 一點▲柳濟日 二點 朴漢秉 一點▲張龍雲 二點 辛在福 一點▲吳聖準 二點 李漢駿 一點▲金永西 一點 崔龍男 五點▲張師八 一點 金俊英 一點▲金尙根 二點 文興昌 二點▲李行鎭 一點 安南山 三點▲金白雲 二點 朴基善 三點▲黃在正 一點 李容還 一點▲李學淳 二點 閔成鉉 一點▲趙乙範 三點 吳介萬 二點▲金相根 三點 崔景淳 一點▲金演貞 二點 東京植 三點▲尹龍福 一點 李順玉 七點▲金龜壽 一點 李鳳基 二點▲李興永 一點 沈良燮 二點▲玄濟鳳 六點 朴敬奉 二點▲安興山 三點 林貴昌 五點▲尹有謙 九點 李亘祖 二點▲李福亨 六點 金顯壽 一點▲金裕連 一點 金今福 一點▲宋召史 二點 尹錫吉 三點▲曹漢甲 四點 許先文 一點▲尹奎石 二點 鄭元植 一點▲朱範柱 三點 李圭晉 三點▲李來顯 二點 鄭昌用 二點▲安永鉉 八點

李鼎求 二點▲尹行雲 一點 李容默 三點▲李寅完 一點 韓昌煥 二點▲金昌鉉 一點 吳定根米一升▲金泳在米一升五合 李枓煥米一升五合▲李福山米五合 徐春明 米三合▲金聖福 米五合 朴龍業 米三合▲趙乙範 米五合 金六英 米五合▲李起西 米三合 李鳳基 米五合

金昌燮 二點▲金振鎬 四點 金明濟 五點▲梁顯錫 十一點 崔建寶 五點▲吳基潤 九點 魚熙淳 一點▲李玉順 十一點 羅元容 七點▲李仲夏 一點 金敎擧 三點▲金吉煥 二點 張鳳鎬 三點▲嚴德成 一點 金善興 二點▲任光鎬 六點 具弘書 二點▲崔景雲 三點 柳長根 八點▲崔鎭殷 四點 宋智植 十三點▲金明福 八點 張鳳任 一點▲崔仁鎬 一點 吳信煥 一點▲李炳壽 四點 具昌熙 二點▲田用鎬 四點 林元植 五點▲韓泳錫 十四點 李根培 一點▲安昌玉 八點 劉漢永 一點▲金明極 二點

王仁町 通仁町 町會(追加)

衣類 四十四點 白米 五升

柳永根 一點▲丁培鎬五點白米二升 朴英秀 五點▲金鎭煥 白米三升 金顯相 八點▲南丁仁 七點 李慶福 六點▲尹泰業 三點 金鎭賢 四點▲金德永 二點 姜璋馨 五點

橋北町町會

衣類 五百卄五點

尹永吳 三點▲李道寬 六點 陳淑伊 二點▲閔丙昌 七點 河俊榮 五點▲李永弘 七點 李起浩 十一點▲宋東泰 一點 尹鳳先 六點▲洪德均 九點 金景祚 三點▲李召史 一點 朴弘柱 七點▲金景分 一點 朴基龍 二點▲李昌德 二點 李鍾昇 五點▲宋榮觀 八點 朴官緖 四點▲金鍾洙 七點 金周達 三點▲孫永佑 三點 金寅鼎 五點▲丁文燮 十二點 文寶奎 二點▲宋永福 十一點 玄泰殷 十點▲李春山 一點 鄭泳鎬 四點▲金光洙 四點 曹秉河 六點▲李鍾完 三點 宋泰弼 二點▲李弘圭 七點 李在福 二點▲韓貞得 三點 朴興植 八點▲陳聖元 十點 柳慶俊 一點▲任學成 三點 李明學 二點▲郭憲龍 十點 裵允煥 四點▲具本濃 四點 金容鳳 一點▲金仁奎 三點 具泰成 十點▲金順昌 二十五點 全殷鎭 十九點▲吳志泳 六點

[illegible] 六點▲李九德 二點 金炳哲 四點▲韓圭福 四點 李能燮 十三點▲金萬鎬 二點 韓洪植 十一點▲崔眞敎 二點 劉炳烈 五點▲李孝中 三點 田花植 三點▲柳永臺 三點 林顯洙 六點▲申臺鉉 四點 朴勝源 靴鞋九十包

徐起澤 五點▲金寅學 二點 李煥模 三點▲金溶興 三點 金顯允 四點▲金 氏 二點 合計(以上笠井町一區)百四十七點 金壽業 六點▲黃今鳳 二點 元谷子 一點▲朴壽和 五點 吳世泳 六點 合計(以上黃金町三丁目)三十點 朴崇元 二二點▲洪正鉉 八點 崔 氏 四點▲韓盛基 四點 林漢誠 三點▲韓敬來 三點 洪俊約 四點▲張泰植 二點 梁斗玉 二點▲安龍福 三點 韓泰源 二點▲尹泰煥 三點 金光雲 二點▲朴泰福 三點 朴泰七 五點▲金龍年 四點 金熙瑋 二點▲朴泰元 八點 朴鍾和 二點▲申洪植 三點 朴友植 二點▲呂德五 三點 千光殷 二點▲崔致安 三點 李喜鳳 二點 合計(以上林町)九一點

笠井町町會

衣類 五七四點

▲松京商會 海東寧五疋 ▲劉昌根 ゴム靴五足 ▲崔殷熙 ゴム靴二足 ▲田然成 洋靴二足 ▲韓商鎬 海東寧五疋 ▲東一商會 疋木二疋 ▲朝日商會 海東寧五疋

梁仟浩 一四點▲金世鎬 四點 金順成 一九點▲金順根 三〇點 朱啓東 四點▲金用浩 一七點 金貞玉 四點▲鄭元佐 九點 李鍾淳 四點▲金泳和 三八點 安庚煥 一點▲朴遠玉 三點 漢城商會 四點▲洋靴店三和 三點 南澤圭 二點▲李鳳鎭 一〇點 李承淳 九點▲德永特賣店 六點 李圭昌 二〇點▲孫花庶頒 四點 金相壽 八點▲金錫登 二點 高永溪 二五點▲康石福 八點 金興龍 一二點▲朴必進 二點 崔漢彰 一五點▲崔榮完 一五點 李元京 一一點▲崔月色 一八點 金德眞 一三點▲櫻谷與三郞 三點 金在連 六點▲李熙邏 四點 金成澤 一六點▲金長煥 一〇點 金永昌 三點▲申永求 一〇點 高相奎 一點▲李東煥 二點 李守貞 一三點▲韓鳳敎 一點 李鍾玉 九點▲張元基 六點 速水元一 一點▲金顯琮 四點 趙愛子 一點▲金鎭洙 五點 申範喜 三點▲朴景植 二點 張應奎 六點▲文義南 一點 金敬權 二點▲金榮洙 一點 金基煥 一三點▲吳昌鉉 二點 南澤奎 八點▲朴容在 三點 李世用 四點▲崔炳喆 五點 李宗館 一六點▲朴順分 二點

少年軍 四十七虎隊募集

衣類 二六八點 白米 一升

洪正洙 二點▲李春植 五點 張命煥 六點▲金在根 三點 李英來 三點▲片鳳九 二點 皮秉澤 四點▲劉性源 一點 李泰燁 五點▲金鎭植 三點 方晉煥 二點▲徐仁子 三點 金源培 二點▲許 錄 四點 朴南奎 一點▲洪容求 一點 鄭秀興 四點▲金正植 三點 金明達 五點▲尹 氏 四點 金正燦 六點▲李炳吉 二點 宋秉泰 三點▲李達煥 二十點 朴勝烈 六點▲廉 氏 二點 韓敬順 一點▲崔貞淑 九點 宋文在 四點▲李熙順 五點 崔奉燮 三點▲金陳源 一點 李壽敬 一點▲李周範 一點

新町遊廓組合

衣類 二百五點

朴雲景 二五點▲金信綱 八點 李春花 一六點▲朴南壽 二〇點 崔汝俊 八點▲白順禮 一四點 錦香 四點▲崔明月 一點 朴順男 二點▲張長林 一點 松月 五點▲瓊珮 三點 彩瓊 三點▲弄玉 一點 瓊花 三點▲蓮紅 三點 彩雲 二點▲李甲伊 一點 弄月 三點▲春紅 六點 玉桃 五點▲玉蘭 一點 花月 四點▲春心 三點

中央禪學院 (京城府安國町四〇)

衣類 七六二點

▲住持 金韓夫氏外首座一同 李雲新 李圭龍 李一夫 金鏞一 黃一崖 金圓讓 鄭寅英 金甯洪 金 哲 韓鳳儀 林初有 嚴萬初 崔應山 朴司宮 崔頓俊 鄭昉一 洪彰峰 韓載鑑 宋俸讓 朴禪秀 金鳳天 韓淸讓 林普圭 李公甫 ▲信男 韓鐵甲 李性中 空 郁 友 靜 ▲(婦人禪友會員及信女一同) 박씨극락화 신씨안락행 리씨창훈 김씨인석 한씨대련심 정씨대자일 리씨자운 구씨지월화 박씨선심화 박씨대선화 민씨원만행 리씨개욱 박씨명선행 고씨여여성 우씨일소 김씨운정 김씨순정 서씨일여 리씨정덕행 강씨청정심 최씨근환 권씨창석 김씨비월행 박씨법계승 김씨대련심 박씨영선행 민씨계숙 박씨진북성 김씨묘련화 구씨천진성 박씨진여성 김씨금련성 김씨자재화 김씨일사 리씨대자심 최씨금강수 신씨보현심 리씨자재성 민씨백련화 조씨묘덕화 서씨일련성 윤씨대지성 김씨향서심 남씨대명심 김씨법운행 우씨두이 최씨자연성 황씨대각일 김씨정련성、박씨정혜일 김씨정련회(漢興酒造場主)

社稷町町會

衣類 一、一七一點

魏 波 三點▲李日連 九點 崔俊植 八點▲明 子 二點 百合子 三點▲尹順愛 二點 英 子 六點▲仲 仙 三點 美 花 二點▲順 姬 二點 崔吉奉 七點▲三 月 一點 [illegible]

淸進町町會

衣類 九二一點 白米 三斗九升

[illegible]

스포츠의가을! 陸上、拳鬪豪華戰

朝鮮體育會主催 ―第十七回― 綜合競技大會第二幕

젊은조선의 의기를 한껏휘날일 스포ー츠의 가을은왓다! 반도운동계로하여금 오늘의 영예를 엇게한 총본영인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 주최의 제십칠회종합경기대회(綜合競技大會)는 이미 그 전초전(前哨戰)인 수상경기(水上競技)를 마치고 오는시월상순을기하야 대망의륙상경기(陸上競技)를 개최하기로되엿스며 뒤이어계속적으로 적당한시일을택하야 권투(拳鬪) 축구(蹴球) 롱구(籠球) 정구(庭球) 탁구(卓球) 야구(野球) 럭비ー등의 온갓스포ー츠의 성전(聖戰)을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주최측에서는 위선륙상경기와 권투에대한 규정만을 다음과가티 발표하엿다

陸上競技規定

▲大會時日 十月三日正午
▲場所 京城運動場
▲申込期限=九月三十日午後五時까지 主催側에到着할것
▲競技種目=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千五百米 萬米 投砲丸 投槍 投圓盤 走高跳 幅跳 高障碍 低障碍 三段跳 投鐵槌 棒高跳 瑞典繼走 四百米 千米中等對校繼走 四百米 八百米 千六百米는 十月二十五日에擧行함
▲參加規定=一人三種 繼走는此限不在
▲參加金=一人參拾錢

아마튜어拳鬪規定

▲大會時日 十月三、四日午後六時
▲場所 未定
▲申込期限=九月三十日 午後五時까지 主催側에 到達하도록할것
▲計體量=十月二日午後六時 主催側에서行함
▲級別=푸라이級、빤담級、페더ー級、라이트級、웰터級
▲參加金=五十錢

4…3 兼二浦勝捷 對殖銀野球戰

京日主催의 第十三回全朝鮮野球爭霸戰準決勝…殖銀對兼二浦日鐵戰은 十日午後四時十分브터 京城球場에서柳(球)中村、橋口(壘)三氏審判下에 兼二浦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對三으로 兼二浦日鐵軍이 勝捷하야 決勝戰에드러갓다

◇投捕=(兼二浦)菊池―上沼(殖銀)吉本、李榮徽―佐藤、小笠原

兼二	000001003	4
殖銀	100000101	3

神宮卓球京畿豫選

朝鮮神宮卓球大會京畿道豫選戰은九月二十日午前九時부터 大德講堂에서 行한다는바 參加者는京城府를除外한 京畿道內居住者에限하야十二日까지 京畿道體育協會로申請하기를바란다고 하며選拔人員은 十二名이라한다

女子百米背泳 世界新記錄

【코펜하ー겐八日發同盟】第十一回世界올림픽大會 女子背泳에優勝한 和蘭의 "센프"孃은 八日"코펜하ー겐"에서열린競技會에서 一分一五秒七의 世界新記錄을 樹立하야 米國"에리아나·호룸·자렛트"夫人이 作成한 世界記錄 一分一六秒三을 破하엿다

◇今日의運動◇

▲野球=全朝鮮野球爭霸戰決勝… 兼二浦日鐵對京城府廳 午後四時 京城球場
▲럭비ー秋季리ーユ第六日 城大對京商(午後四時) 遞信對商工(午後五時)以上龍山球場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二五〇、〇〇大阪ゼネルモータース株式會社(京城日報社扱)▲一〇、〇〇京城驛前林屋吳服店 一二(同)▲五〇〇、〇〇京城府本町平田百貨店(朝鮮新聞社扱)▲一、〇〇〇、〇〇天理敎管長中山正善▲一八四、〇〇漢城醫師會扱 [illegible] ▲二五〇、〇〇平田百貨店一同(同) ▲三、〇〇京城府本町鮮滿開拓株式會社 ▲一〇、〇〇平壤飛行隊 [illegible] ▲一〇、〇〇元山府 [illegible] ▲一五、〇〇兵庫縣大阪同仁會 ▲三〇、〇〇奈良縣天理敎 [illegible]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頭痛이잘낫는名藥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끌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眠이 不足하거나 過度한讀書로睡 머리가무겁고 흐릿흐릿할때나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처못할때나 언제든지 [illegible]

價 藥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矢野 肺病必治 꼭낫는다!

無料(內務省(衛生局)編纂의結核에關한文獻과나의全治된自宅療法을가르처드리고또良藥을無代進呈함) 여러가지藥을먹어도낫지못한人士와 조흔藥과조흔養生을알려는사람에게

身熱이나리지안는분 기침이끗치지안는분 밤에식은땀나는분 喘息되는분 喀血되는분 억개가무거운분 不眠症잇는분 每日疲勞하는분 胃腸이弱한분 頭痛나는분 倦怠症나는분 胸腰痛잇는분 關節이잇는분

억지로라도 重症患者는勿望 더한症이라도 失望마십시오

大阪市西區日吉橋北 矢野テントン商會 振替大阪六三四五六

第二期患者도念慮마십시요 數年前에무서운肺病에걸인나는世上에 혼한賣藥을無益하게쓰며有名한先生에게診察을보앗스나주엄을기다렷슴니다 二個月後에는安心하고잇슬수업슴으로全生命을바처가며 研究가되지안허一時는明日의生命이危殆하든나는 以前보다도健康한身體가되엿습니다 肺病特效藥其他病잇슬當時의 實驗談藥의選擇法 갈흔것 特効良藥을無代로드려게든지 가르처들입니다 肺病、肋膜、肺炎、加答兒로苦生하시는분은 이글을보시게되는것이무엇보다 多幸입니다 百年의後悔가되기前에 이新聞名(朝鮮日報)를記入하야 一時라도速히肺病全快法無料送付하라고하십시요 奉仕하고잇는사람입니다 이것도 救人하기爲하야하고잇는것이오니 아모조록安心하시고問議하야주십시요

本人住所 東京市小石川區東青柳町三

松島敎正

鑛業の出願手續及經營一般 附錄=最新鑛業法集成

東京鑛山監督局 寒川俊太郎著 四六判洋布裝本 函入六百餘頁 書式雛形他滿載 價三圓八十錢 送料六十二錢

推奬 東京鑛山監督局長 東榮二氏 前鑛山監督局長 淺野兼助氏 法學博士 大谷美隆氏

鑛山手續 出願賣買 投資經營 訴訟其他 本書一卷 活用自在

本書一冊잇스면鑛業에무엇인지모르든분은勿論實際家도利益莫大
■鑛業初心者의絶對信賴할수잇는玉篇! 初心者도그날부터所用되고發見의기쁨을맛보게될것을保證합니다!
■鑛業權者의利益을擁護하는顧問書 監督官廳에의諸手續으로鑛業權訴訟手續모도알수잇다
■鑛業技術者를爲한便利한手帖 鑛業에關한法規等一切를網羅한本書一冊만잇스면鑛業通이된다。
■鑛業事務家不可缺의手續百般日常便覽! 如何히關係書類를調製하고如何히手續을取하는가實際家에不可缺
■鑛業投資家의正確無二한最良指針書! 鑛業權金融에對한先行的으로如何한注意가要하는가等詳細
■一般法律家事件取扱智識增進의好伴侶! 訴訟額이만흔比例로手續等의難解되는鑛業關係法律家師友
■官廳公衙事務處理上必備의參考書! 總督府稅務署其他官廳實際事務取扱上無二의座右書로必備

(內用見本無代進呈) 注文은最寄地書店又는直接發行所에 送料加算振替로先金申込할事

東京市麴町區下六番町四八 發行所 厚生閣 振替東京五九六〇〇番

萬腫速治 종종에는 한씨고약

全鮮藥店販賣

韓氏膏藥

本舖 中城韓藥房 平壤府巷町九四番地

최신형 田所式製繩機 型錄進呈

문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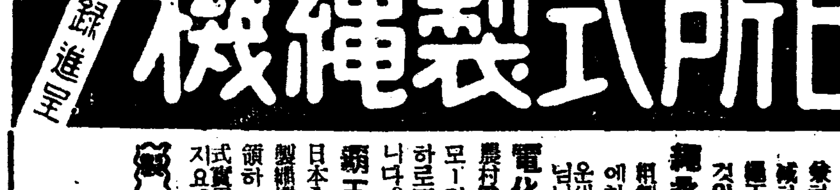
農林省御推奬 各地共進博覽會金牌受領 (九月十七日브터五日間咸興府朝鮮農具實演展覽會에出品)

動力仕上付製繩機 本機는製繩과 다듬는것을兼하야作業하는대工賃을半減하야利益을倍加케하므로製繩工場에서는必要不可避한것입니다.

繩柔軟仕上機 製繩고다듬는새기라도本機에한번드리가면부드러운고운색기로되여갑이빗싸게팔님니다.

電化號製繩機 農村電化의急先鋒電燈線으로모-터를돌려製繩하는것으로하로四十貫의製繩能率이잇습니다.

覇王號製繩機 日本全土에서 使用하고잇는製繩機中에約七割은 本機가占領하고잇습니다. 얼마나田所式實用型이優秀한가를아시겟지요.



(製造直販) 大阪市北區茶屋町 大阪農具商會 電話北四五二一•四五三 電信略號オサカノウグ

九月十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今週부터晝夜二回 晝間은七時三十分부터 每日三回晝夜公演 正午十二時부터 大衆料金 階上十五錢階下三十錢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존・포ー드氏監督 人情大活劇 男의敵 快漢빅타ー막크라렌氏主演 梗槪本年度아메리카映畫에第一級作品으로서名畫의名譽를차지하고 [illegible] 松竹蒲田大作文藝映畫全發聲 現代名篇 雙心臟 淸水宏氏監督 川崎弘子 高杉早苗 上原謙氏 近衛敏明氏 共演 漫畫多數紹介

鍾路五丁目 電光二三番 第一劇場

九月九日晝부터 料金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十一日土曜日은晝夜二回 晝一時 夜七時四十分 ◇R・K・O社超特作日本版! 豪華版 邪神島 主演…스테프슨스나 提督…위례즈 RKO라지오超特作日本版 愛慾調 世界의富者女子 主演…미리암호킨스 大都映畫社超特作品 現代劇 ママナラヌ女 監督…太田辰三氏 主演…寄絲路 次週…十二日부터桃花劇場專屬 東劇座公演

麻浦桃花町 電龍三三番 桃花劇場

異敎邪宗과恐怖와魔의都! 怪奇의地! 카이로의戰慄 妖花가미리호ー른孃主演 白き王者 俺の鐵拳制裁 大河百代 富田義一助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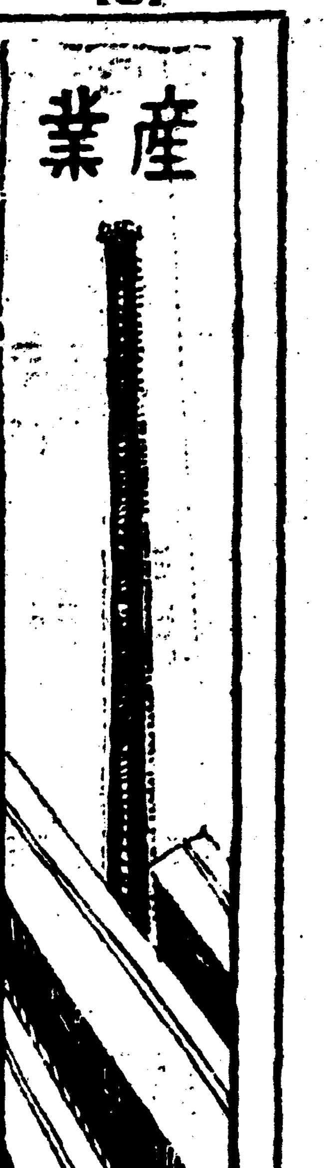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五日낮부터每夜二回(晝一時、夜七時開演) 靑春座公演 崔獨鵑作 悲劇 두女子의걷는길 全六幕 東劇文藝部作 喜劇 別莊과奇緣 一幕二場 次週上演名篇 林仙圭作『明暗有罪』二幕 崔獨鵑作『修道院』四幕 絶好의씨ー슨! 無敵의名篇! 九月九日부터超特別大封切! 佛蘭西반다로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주리앙듀비베에氏大作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二五一二

訃告

[illegible] 宿患不幸今日午前八時四十分於自宅永眠 [illegible] 一、發靷 九月十四日午前 一、告別式 九月十四日午後 [illegible] 一、葬地 咸州郡東川面 昭和十一年九月八日 [illegible]



產業

"耕地復舊"는 可能 棄地離散은 不必要

當面은 小麥、菜蔬代作이 適當

慶南北水災地善後策

慶南北道의 水害地의 農産關係調査次로 出張하엿든 總督府農産課山本技師와 高橋技手는 被害地狀況과 今後農業關係對策에 關하야 다음과가튼 感想을 말하엿다 卽

一、被害狀況은 意外로 甚大하야 現地를 踏査치안코는 到底히 想像할수업는 狀態이다 特히 山崩으로 因한 河川氾濫으로 山峽地帶 田畓의 流失決潰는 其中 大槪가 河川流域이만큼 土地는 比較的 肥沃한곳이 만타 그만큼 被害의 程度는 深刻하다

一、被害가 甚한곳은 面單位로 보면 五割乃至七、八割의 全滅、減收等의 慘澹한곳도 잇서서 그런곳은 實로 情狀이 아득하다

一、復舊에 關하여서는 一部山峽地帶에 石塊等으로 埋沒된 곳은 復舊하는수밧게 업스나 그面積은 極히 一部分이어서 그때문에 農土를 버리고 他地로 出稼치안흐면 안되리라고 보는것은 極히 적으리라고본다 그럼으로 大部分의 被害耕作地는 土砂나 泥土를 除去하고 堤防을 改築하야 復舊케함이 可하고 또 可能한것이다

一、勿論 復舊까지에는 被害者들도 各自努力할바이나 農民의 自力만으로는 到底히 미칠수업서 國家的助成이 잇서야할것인데 그러한 耕作地의 復舊에는 國庫補助가 어느程度까지 잇스니 이를利用하야 各自가 힘써야 할것이다

一、다음에는 耕作地의 復舊는 곳 될곳도 잇스나 그러치못하고 半年以上 一年式 걸려야할것도잇슬것이다 長久한時日을 要하여야할 곳은 이미 土質도 變한곳이 만흘것으로 明春부터 耕作한다 하드래도 그點을 充分히 注意하야 土砂가 만흔곳은 落花生 외갓자를 심으더라도 하여야할것이다

一、當面에는 明春의 食糧準備를 兼하야 耕地가 整理되는 곳은 約一個月後의 播種期를 압둔 小麥의 種子를 準備하고 또 蔬菜等을 播種함이 最善의 方途일까한다

一、流失埋沒 또는 浸水로 因하야 被害가 잇섯든곳은 甚하나 其地帶로가면서 天水畓엿든데 比하야 大端히 成績만흔 그동안 天候가 不順하이 조타 그때문에 慶南北을 通하여 減收豫想이 二、三割의 程度에 끄치는것도 그때문이다

副業奬勵로서 라이麥、甘藷考慮

適當한作物調査中

農林局에서는 罹災者救濟策으로 副業의 奬勵에 對하야 當分間의 食糧을엇게하는同時에 明春農期에 備하야 破損된 耕地의 復活에 全力을 傾注하기로되엿는데 副業으로서 于先드는것은 叺의 製造로 罹災民을 이方面으로 向케하면 六千萬枚의 生産이 可能한 適當한 副業인데 生産過剩이될 憂慮가잇슴으로 그의 調節을 如何히 하겟느냐함이 當面의問題이다 罹災民에對한副業은 一般農家에對한그것과는 多少趣意를달리하야 꼭現金이되지안흐면안되며 또그것만으로 當分間의 生計를 維持하기에足한것이아니면안될으로 그選擇의 範圍가 非常히좁아서 當局에서는 選定에苦心하엿다 또 被害耕地는 土砂의 流入等으로 土質에 變化를生하야 水田으로 復活할 希望이업는것도 相當히잇서서 此種耕地의 復活利用에 對하야는 結局그土質에 맛는作物을 耕作식히는수밧게업다하야 라이麥、甘藷等 砂地에適當한 作物을 明年度부터 새로 奬勵하고저 調査를 進行中이다

平南木炭增産計畫

平南道의 木炭需要額은 逐年增加하야 一個年消費量 百七十萬貫에 達하나 現在生産額은 百萬貫內外에 不過함으로 不足分은 他道에서 供給을밧고잇는形便인데 만일 道內山間部 陽德、价川、孟山、德川、成川、順川、寧遠等郡에 豊富히 存在한 製炭資料를 開發하야 製炭事業의 擴大向上을 圖한다면 木炭需給의 圓滑을 圖謀할수잇슬뿐 아니라 副業의 奬勵 林利의 增進 農山漁村의 經濟的更生等에 도움이될바 多大할것이라하야 平南道當局에서는 今年부터 木炭增産 五個年計畫을 樹立하고 製炭의 改善과 增産에 一層注力하게되엿는바 이計畫에 依하면 前記主要産地 七郡四十個面을 奬勵地域으로 決定하고 二百五十萬貫增産을 目標로하야 炭質의 改善向上을 圖한 諸般施設을 一層擴充强化하는 勿論 炭材林의 助成、伐採等에 統制를 加하며 金融組合으로부터 資金融通을 圖케하야 斯業의 向上發達에 拍車를加하려는것이고 炭質向上을 圖하야는 各面마다 部落을 單位로 製炭業者와 燒夫를 網羅하야 製炭組合을 結成케하야 [illegible] 더이라한다

中國紡績界現狀

日本의北中進出注目

最近中國紡業界에서 特記할二事象이잇다 하나는 日本紡織이 北中에着眼하고 發展을圖한것도 하나는 中國棉이 有史以來의大增産을示하야 이로窮狀에잇는中國紡織이 만히 救出되리라고보이는것이다。

購買力의 增加

最近發表된 中華棉業統計會의 第一回豫想에依하면 新棉의 生産高는 千六百四十萬擔으로 豫想되고잇다。이는同統計會調査의 昨年度實收高의 二倍에 該當한다 中國國內紡績의 棉花消費高는 平均約九百萬擔을 이에紡織外의 消費約三百萬擔을 加하야도 千二百萬擔이면 國內需要를 채울수잇슴으로 今年은 多量의 棉花輸出에 充當할수잇슬것이다 棉花의 輸出에 充當할수잇는것이다

元來長期에亘한 中國貿易의 大勢를보면最初入超가 最大한것은 綿絲이오 다음에 綿製品이 代身되고 最近은 棉花이다 그러나 政府의奬勵에依하야 棉花의 生産은 年年增加하고 延하야 輸入도 漸減하게되엿다。即(單位千擔)

	生産	純輸入
一九三一年	[illegible]	[illegible]
同 三二年	[illegible]	[illegible]
同 三三年	[illegible]	[illegible]
同 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同 三五年	[illegible]	[illegible]
同 三六年	[illegible]	―

또 이大增産의 結果、奧地農民의購買力도 增加할것이며 그

昨年度의窮狀

奧地需要와 在荷의減少로 綿絲市勢도 比較的 빗싸다 그럼으로 今年中國紡績도 幾分救出되지안흘가고 보고잇다

도리켜보건대 昨年의中國紡績業은 非常한 窮狀에잇섯다。勿論 紡機數에잇서서나工場數에 잇서서나 그의增加의 傾向은 往年에 比하야 나으면 낫지 못하지안타 新設工場을 보아도 中國紡側에 잇서서는 江蘇省嘉定縣에 嘉豊紡、陝西省에 大興紡第二、廣州에 廣東紡、日本紡側에 잇서서는 靑島에 上海紡、豊田紡이잇고 英人側으로는 上海에 綸昌紡이잇다 또建業中의것에 잇서서는 中國紡側에 西安의 裕秦紡 及 雲南의 雲南紡、日本側에 靑島의 同興紡이 잇섯다

그러나 紡績業의 實狀은 이와 全然 反對로 工場의 整理乃至 競賣가 續行되엇다 一年間을 通하야 正式으로 解散한것에 武進의 福大紡、南通의久安紡、武昌의 民生興起가 잇고 淸算한것에 天津에 裕元紡、上海의 民生紡、南通의 大生第二廠이 잇고 競賣에 附한것에 無湖의 裕中紡、九江의 久興紡、河南의 成興紡等이 잇스며 또 借者를 求하는것에 常熟의 裕泰紡이 잇섯다

華商紗廠聯合會(中國紡績聯合會)의 年報에 依하면 今年三月現在의 在中紡績數(建設中을 包含)은

		九五工場
中國人紡		
日本人紡		四四
英國人		一四三
合計		

인바 中國人紡九十五工場中、十九工場은 休業하고잇다 또昨年度下半期의 紡績操業狀態를보면 半個年約廿六週中 七、五一週休錘하고잇다 即約三割의操短에 該當하다 勿論英人紡에 이르러서는 十九週以上이나 休錘하고잇는 日本人紡績은 僅〇、一九週에不過하다

▲河北省의紡績統計

	資本金(千元)	紡機數(錘)	織機數(臺)	職工數(人)	綿絲生産(包)	綿布生産(千方碼)
天津華新紡織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唐山華新紡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裕元紡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恒源織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洋紗廠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
裕大紡織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
寶成第三紡織◇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
達生製線廠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	―
寶記紗廠	[illegible]	[illegible]	―	―	―	―
大興紡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備考◇休業中、△一部休止、×外에增設中七〇〇〇錘가잇다

設備의推移

다시 今年三月로써 낫나는 過去一個年의 紡織設備의 增減에 依하야 紡績業의 推移를 보면

一、昨年度中에 中國紡績은 十萬五千錘의 增錘를 보앗스나 그中上海는 僅히三萬錘를 占할뿐으로 大部分은 他開港場及新設工場에 屬한다			
一、日本人紡績의 增錘는 六萬八千錘로 上海는 도리혀 二萬一千錘減、靑島에잇서 八萬九千錘의 增加를示하얏다			
一、英人紡績은 四萬二千錘가 增加하얏스나 이는 上海綸昌紡의 操付이다			

右에 依하야보면 最近紡績의 奧地發展의 傾向이 顯著하다 이는 原料의 供給、製品의 取賣에 便利하기때문이라고보인다

一方織布業에 잇서서는 日本人紡의 織機增設이 눈에 띄이는바 이는 中國의 綿織物關稅가 놉기때문이다 全體로보아도 紡織의 設備는 過去五個年間에 一割八分增加하얏슴에 不過하나 織機는 五割二分方激增하얏다 昨年度의 織機設備 及 綿布生産高의 內容을 示하면 如左하야 中國人紡이 日本人紡보다 만흔

紡機를 所有하면서도 綿布生産高가 적음은 注意를 要한다

	紡機(千錘)	綿布生産(千方碼)
日本人紡	二二、六	六〇三四
中國人紡	三二六	三五九
英人紡	四、〇	四三
合計	四八、二	一、〇三六

中國에의進出

以上과如한 事情에잇서 또北中의 情勢 日中經濟合作의 氣運에助長되어 日本紡績의 北中進出을보게되엇는바 이 非常紡績에만 煙草、硝子、製紙、毛織板等의 進出計畫도잇다。

그런데 北中紡績界의 現狀을보면 現在河北省에잇는 紡績工場은 十工場으로 그中 天津에는 裕元、寶成、恒源、北洋、裕大、天津華新、達生의七工場、三十四萬五千錘(그中 撚絲紡績機가 一萬一千錘)이다 그러나 그中裕元、寶成의 二工場은 休業中이고 裕大는 以前부터 伊藤忠商事가 委託經營에

當하고잇다 그리고 現在에는 七工場中 北洋、達生、恒源을 除하면 全部日本資本下에 드러잇다 即 裕元과華新은 鐘紡에 買收되고 寶成은 伊藤忠商事에 買收되엇다 殘餘工場도 어떠한것은 銀行의 손에 드러가잇는形便임으로 遂次買收되지안흐리라고도 일수업다 此外에 日本紡織業者에 依하

▲全中의紡績統計

中國人紡績

	工場	紡機(千錘)	織機(臺)	職工數(人)	綿絲消費(千擔)	綿絲生産(千包)	綿布生産(百萬方碼)
◇運轉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休止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準備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人紡績 運轉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準備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英人紡績 運轉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準備中을除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五中외어느期間에操業하엿든것에서도 現在休止한것을包含

야 進行되고잇는 工場新設計畫이 多數잇다。即 東洋紡은 裕豊紗廠(紡機五萬錘 織機一千臺)를 建設中이고 東洋綿花綿絲의上海紡織도 新設計畫을 進行하고잇다 그他福島紡績 大日本紡績等도調査員을 派遣하야 各히研究中이라고하야 日本紡績의 北中進出은 非常히注目되고잇다

綿絲布의需給

北中은 綿絲布의 需給關係로 보면 供給不足의 狀態에잇서年年 相當한 數量을 他地方으로부터 移入하고잇다 따라 同地에는 紡績發展의 餘地가잇는터이다 그는如何間 北中의 紡績業의 結果 中國은 不遠 綿製品에잇서서도 棉花와 綿同樣自給의 域에達하고 다시 輸出國에 轉할것이다

그런데 全中의 最近綿絲布需給狀態를보면

▲綿絲 (單位千包)

	生産	輸入	輸出
一九三一年	四、二九六	[illegible]	[illegible]
三二年	四、三八八	[illegible]	[illegible]
三三年	四、一七五	[illegible]	[illegible]
三四年	四、三〇四	[illegible]	[illegible]

▲綿布

	生産	入超
一九三一年	四、九八一	四四二〇
三二年	五、二五四	三八九
三三年	五、四九七	一四一
三四年	五、六六八	七四

稻刈取期와營養

뷔타민B가가장만흔쌀은 最盛開花後六十五日頃物

白米食에重大한指針

白米食은 뷔타민이 不足하다고 論議되어 玄米에갓가운 白米라는 見地에서 胚芽米가 食用되고잇는바 이외가티 뷔타민人工에依하야 加工하는一方 米自體에 뷔타민의 多寡가 다른種類와 時期가잇지안흘가하는것으로 大原農業硏究所에서 米의形質과 뷔타민B含有量의 關係에 對하야 目下 調査中인데 그結果 玄米의 뷔타민과 密接한關係에잇는 胚 胚乳의 크기를硏究하야 果然 米의 種類及刈取時期에依하야 뷔타민量이 다름이 判明되어 米食에 重大한指針이 되게되엇다 卽 米의 成熟中의 胚의 重量은 最盛開花後 十五日次의것에 比하야 六十五六日次의 重量은 最은 約二培 胚乳의 重量은 最倍 胚乳의 容積은約三倍로되고 比하야 六十五日次의것은 約六倍 胚와胚乳의容積比例는 最盛開花後二十日乃至二十五日次에 最大하야지고 以後熟度가進行됨을 따라 減少하야六十五日次에 約三十二倍되엇다 그리고 뷔타민B量의 點으로는 稻의刈取期를 決定하면 最盛開花後 約六十五日頃이다 또日常食用에 供하고잇는 米는 이調査範圍內에서는 胚의 크기는 千個로平均約〇、六立方糎 胚乳는 千個로 平均 約一五、五立方糎이고 胚에對한胚乳의 크기의比例는 平均約一九、五이다

地方別로보면 胚의 크기는中國地方産米가 最大로 다음이近畿、中部、北海道、奧羽、關東、九州、四國、朝鮮、臺灣의 順이고 또 胚乳의 크기는 近畿地方이 最大로 以下中國、九州、四國、中部、奧羽、朝鮮、臺灣、關東、北海道의 順이고 胚와 胚乳와의 比例는 海道의 順이며 胚와胚乳의 크기의 比例는 近畿、中國地方産米는 적고 臺灣、朝鮮、四國、九州米는 크다

鎭南浦苹果 仲介人排除

一部業者들이 畫策

【鎭南浦】 鎭南浦産業組合에서는 鎭南浦의 特産品 苹果生産者의 利益을 增進한다는일흠아래 晩秋에 苹果統制를 計畫하여오든중인데 지난七日또다시 一部業者들이 苹果販賣에對한協議會를 열고 第一着으로 苹果仲介人을 全廢하고 認可制度를 實施할 目的으로 平南道知事에게 陳情하기로 되엇다는바 그가實施되는날이면 苹果仲介者들이 一朝에 職業을일케될뿐아니라 果然苹果生産者들에게도어떠한影響이 미치게될것인가하야 數千果樹業者들도 半信半疑하여 그推移를 매우注目하고잇다한다

十年度國庫現計와 明年度豫算編成(上)

今年七月末現在의 昭和十年度國庫歲入歲出現計가 大藏省으로부터 發表되엇다 七月末의 國庫現計는 大藏省에 關聯하는 主計局의 앞으로 今後 計數에 結果多少의 異動은잇슬지라도 大體에잇서 이로써 十年度歲入歲出總決算에 가가운數字로 보아도좃흘것이다 每年 大藏省이 豫算編成期를 當하야 翌年度豫算의 歲入推算을 함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前年度決算을 基準으로하고 이에 加하야 豫算編成이 終了하기直前에 이르기까지의 歲入實績을 考慮에 너어 計算하는 年度 後半의 歲入增加를 推算하여보는것이다 七月末現計에 依하면 歲入總額은 二十二億五千九百三十二萬一千圓으로 同年度豫算에 比하야 四千三百九十萬七千圓으로 九年度現計에 比하야 一千二百三十三萬九千圓가 各히增加되고 歲出總額은 二十二億六百四十七萬七千圓으로 同年度豫算에 比하야 九千八百五十八萬圓의 減少 또 九年度現計에比하야 四千三百四十七萬四千圓의 增加를 하고잇다 따라 歲入歲出差額 剩餘金은 五千二百八十四萬四千圓으로되는데 右中에는 十一年度에 繰越한 歲出의 財源充當할 金額 五千八十九萬二千圓을 包含하고잇음으로 이를 控除하면 百九十五萬圓의 剩餘를 生하는 計算으로되고 그中 九年度剩餘金의 使用殘額은 十年度에 繰越된 [illegible] 百九十五萬圓으로 된다 九年度의 最終國庫現計에 잇서서는 四百四十萬三千圓의 剩餘金을 내엿슴으로 이에比하면 [illegible] 金을 내엇슴으로 이에比하면 [illegible] 적어지게된다 [illegible]

[illegible] 十年度歲入의 實績은 昭和三年度決算까지라도 日本의 統計上 剩餘金이 全然 업게된것은 昭和三年度決算以來의 일로 그以後 每年 [illegible] 歲計剩餘金이 되어 豫算編成上 [illegible] 財政의 錯綜에 [illegible] 十年度 最終國庫現計에 對하야 中 予先歲入의 實績에 對하야 調査하야보자。

租稅、印紙收入、官業收入等의 經濟界의 好況을 反映하야 그 增收를 豫測하는바로 國稅收入은 十年度의 豫算에 比하야 一億六千[illegible] 이라고하니 [illegible] 十四億五百四十一萬六千圓으로되어 同年度豫算에 比하면 六千九百八十三萬八千圓이 [illegible]

明年度豫算의 自然增收에 對한 心算을할것이다 [illegible] 財源에 이程度는 當然히 自然增收에 依한 [illegible]

[illegible] 十年度剩餘金의 [illegible] 이는 外資의 [illegible] 民的資本의 [illegible] 國際收支의 狀況如何 即 國際貸借의 [illegible] 國際關係에 依한 影響如何이라고 생각되는바 實際의 態勢에 對하야正한 論議를 [illegible] 지안흘가?

平原에서白土發見

【順川】 平原郡 德山面 大浦里一帶는 白土가 豐富하다 하야 지난달中旬에 名古屋 製陶會社에서 地質을 調査하얏든데 果然 土質이 良好함으로 同會社에서는 每坪三十錢으로 一萬坪을 買收하고 그採掘에 着手準備中이라한다

平康郡에서 麥作改良奬勵

耕作"不適"은不當

二萬二千町步의 廣大한 田作耕地를 擁하고잇는 平康郡에서는 每年春期에 多數의農民이 食糧缺乏에 陷하야 다른아무副收入이업슴으로 暴利를 極하는 糧米前借를 敢行하게되는 關係로 農家生活에 打擊이 莫大함으로 郡當局에서는 從來 同郡은 地質上麥作이 不適當하다는 因習을 打破하고 今後 麥作을 奬勵하야 貧農의 不安을 緩和코저 過般來 各處로부터 麥作에對한 材料를 蒐集하야 硏究한中 從來 同郡의 麥作이 不振한것은 主因인것이 作法의 不充分한것이 主因인것이 判明되엇다 今秋부터 麥作改良奬勵事業實施하기로 決定하고 目下大計畫樹立에 奔忙하고잇는데 郡內田作耕地面積의 半分即一萬一千町步에 麥作을 奬勵하야 十萬石의 麥收穫을 어들計畫이라하며 그외가티 麥類의 十萬石收穫을보면 春窮期의 郡內農家의 高利한 食糧前借를 防止할수잇다 한다

平壤洋襪業活況

海道의 順이며 胚와胚乳의 크기의 比例는 近畿 中國地方産米는 적고 臺灣、朝鮮、四國、九州米는 크다

[illegible] 平壤洋襪業界는 米國同洋襪의 大量輸出品을 平壤에서 購入키로하고 平壤新業者와의 間에 契約이 成立되엇는데 그後 平壤洋襪業者들은 輸出品의 練習에 着手하야 最近纖維原料의 購入을 行하고잇서서 只今부터 平壤洋襪業界는 그活況을 呈하고잇는모양인데 그影響은 卽時 平壤驛取扱貨物의 到着量에 反影되야 例年가트면 十月의 洋襪需要期에 들지안흐면 綿絲到着量이 增加되지안는바이지만은 今年은 前記契約에 依한 十月頃에는 激增될것으로 豫想되며 平壤에서는 이에따르는 增加는 只今부터 그 十二個四匠餘에 達하야 今後더욱 增加의 趨勢를 보이고 잇다 한다

日用商品市況

京城 (九月八日)

◇菜蔬類

品名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馬鈴薯白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蓮根	同	[illegible]
生薑大	同	[illegible]
同小	同	[illegible]
수박	同	[illegible]
胡瓜	百個	[illegible]
茄子	同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시금치	同	[illegible]
숙갓	同	[illegible]
南瓜	本箱	[illegible]
玉葱	十二貫	[illegible]
靑葱	一貫	[illegible]
미나리	一把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菓實類

品名	單位	價格
苹果國光	四貫	[illegible]
同旭	同	[illegible]
同祝	同	[illegible]
梨早生赤	三貫五	[illegible]
同今村秋	三貫五	[illegible]
同晩三吉	同	[illegible]
夏密柑	同	[illegible]
바나나	一貫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잣	一石	[illegible]
실백	一斗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銀杏	百斤	[illegible]
고추	同	[illegible]
고추가루	同	[illegible]
실고추	同	[illegible]
大棗	百斤	[illegible]
乾蓮根	一斗	[illegible]
生落花生	百斤	[illegible]

◇家畜飼料

品名	單位	價格
豆粕乾粕	十貫	[illegible]
成雞用飼料	五斗	[illegible]
育雛用	同	[illegible]
中雛用	同	[illegible]
雛鷄用粉	二斗五	[illegible]
麩	百斤	[illegible]
玉蜀黍粉	九十斤	[illegible]
同 中割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高粱粉	同	[illegible]
同 粉	同	[illegible]
魚粉メ粕	十貫	[illegible]
糠	八五斤	[illegible]
穀	百二十斤	[illegible]

◇養鷄用鐵網

品名	單位	價格
四尺幅	二寸目百斤	[illegible]
同	一寸半同	[illegible]
同	一寸目同	[illegible]
三尺幅	二寸目同	[illegible]
同	一寸半同	[illegible]
同	一寸目同	[illegible]
同	五分目同	[illegible]

◇毛皮類

品名	單位	價格
앙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匁	[illegible]
同 三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械毛	同	[illegible]
펠트	同	[illegible]

◇川魚類

品名	單位	價格
잉어	一貫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자라	同	[illegible]
蜆貝	一升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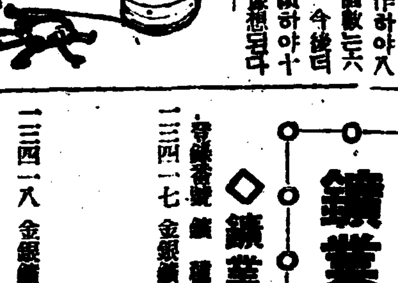
◇家畜類

品名	單位	價格
鷄卵	百個	[illegible]
鷄卵	一貫	[illegible]
同	同	[illegible]
生鷄	同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生兎	同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鶉卵	同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一反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杞柳	一貫	[illegible]
番椒	同	[illegible]
漆	同	[illegible]
椎茸	同	[illegible]
胡麻油	一罐	[illegible]

【朝鮮副業品共進會調査】



問 小生은 染色油紙를 製造하는바 製造後 乾燥만하면 染色빗이 全部變하야 白色油紙가 되여서 使用不能이오니 右染色빗이 永久不變하는 藥種名과販賣所와 光學作用을 仔細히 下敎하여주옵소서 (滿洲圖們市 金基俊)

答 油用染料를 使用치안흔까닭이외다 染料는 京城蓮池町井上商店에서 販賣하는데 油脂用染料를 購入하야 油中에 適當히 溶解식혀서 使用하시오

問 木物家具品의 칠하는法에 對한 書籍의 販賣所와 價額을 下敎하여주시옵소서(咸興 一讀者)

答 東京市神田區神保町一 誠美堂書店發賣 今泉辰次郎著『實用塗工術』價二圓五十錢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三三四一七	金銀鑛	咸南永興郡仁興面 平南寧遠郡新城面	八月十七日	永興郡仁興面 代表者 崔載浩 同南山里 西野七十郞 同雲峰里 町田喜次郎
三三四一八	金銀鑛	平北義州郡古寧朔面	同	京城府南大門通 橋洞金山株式會社
三三四一九	金銀鑛	咸南北靑郡俗厚面 陽化里	八月十八日	天安郡天安邑 代表者閔載昌 北靑郡俗厚面 金昌變
三三四一九	黑鉛	平北江界郡化京面	八月十八日	价川郡中南面 朴嘉洙
三三四二〇	金銀鑛	江原原州郡富論面	八月十九日	高陽郡纛島面 李根雨
三三四二一	金銀鑛	平北碧潼郡松西面	同	安岳郡安岳面 代表者元鳳燮 光州府弓町 安鳳勳 京城府苑西町 李相喆
三三四二三	金銀鑛	京畿驪州郡北內面	同	大邱府明治町 尙德遵
三三四二四	金銀鑛	忠南天安郡北面	八月二十日	天安郡成歡面 代表者沈相德 振威郡彭城面 小島經治

◇鑛業權消滅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四一六	全北鎭安郡程川面	八月十四日	廢業

黃昏 (763)

韓雪野 作 / 安夕影 畫

대책 (九)

「이것봐、려순이……」

하는 사장의 소리가 들려오자 정념은 다시 귀를 빳삭기우렷다。

「세상일이란 그런것이고 모다 때와경우가 잇는거요。내가 보는바로는 적어도 일생에 한번은 큰운수라는것은、한번 노치면 뿔라도 서변이라야 재처올 운수도 역시 맛춤가진데、마침 아울수잇다고 생각하오。회사의 유리회사도 지금 그러한 중대 시기에 당면해잇소。그래서 나는 이기회를 노치지안코 대개혁을 단행하기로 한건데、이회사와 운을 한가지로 해스면、또 고 내가 바라는사람이야 업지。려순이 한사람뿐이겟소만、그래 도 내생각은 려순이를 누구보다 먼저 이회사에 끄러오고십 다는말요……모든 때문이지는 나 자신도 매이 알수업소만、하하 하……」

사장은 이러케 웃다가 말던 소리를 나추어가지고、

「흥은 지난봄에 내가 려순이

「얼마전에、공장에 잇든 사람이 지금 우리와 잇지안습니까!」

하는 려순의말을 들으며 정념은 대뜸 모든 신경이 귀로 쏠렷다

「아、그것말이오? 원 어떠로 업는……그걸 엇다 쓰라말요? 절간을 봉창에 대는심이지……」

사장은 배앗듯이 이러케 말하고는 이어서、

「그거 어듸 쓰겟드라구……다시 공장으로 보내든지 내보내든지 해야지 가만이 보니까 아주 못쓰겟서、활화자사 강아지처럼 아무데나 함부로 드나들고해서 회사체면에 안되서。공장에나 처박아두면 모르지만……」

「공장은 어듸 그런 사람이나 모이는데니까? 모다 지원한사람들뿐이데요。그전에는 물론합니다만 정작 가보니까 모다들조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보내는수밧게 업지 그리지안허도 밤서부터 내보내라든중이오」

한데 미안한일이 만허서 그런지 또는 려순이가 타고난 복을 하눌이 나로하여금 이루어주도록 마련해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겟소……하여튼 려순이가 이회사로 다시 들어오게된것만 보더라도 저간에 무슨 수월치안흔 인과(因果)관계가 잇는것갓소。그러니까 그걸 어기는것은 이를테면 하눌에 거역하는거란말요」

하고 그럴듯이 구슬리나 려순은 아무 대답도 업다。

「새공장이 시작되면 려순일여 공덕당으로 승격시킨다고 그전에 언명한일도 잇소만、구라여 그럴거업시……지금 인사과(人事課)에 려순이가튼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그리로 와잇스면 엇더켓소?」

「아님니다。저는 그대로 공장에 잇겟습니다」

려순의 소리는 비로소 청으로 똑똑히 들려왓다。

「아니 인제 그만치되서 보앗스니까 올라와잇서도 상관업지안소?……려순이도 대강 짐작하고 잇슬테지만 인제 새공장이 되는데따라서 인사정리도 생길거고 또 공로로는 정말 큰대공장으로서의 관리방법을 취해야할거니까 여공에 관한 인사문제는 역시 녀자책임자에게 일임하고 십단말요 한데 마침려순이가 사무실과 공장의사정을 모다 잘알고잇스니까 제일 적임자일줄 아오 도리거 살펴보아야 려순이만한 사람이

사장의말。

정념은 약이 머리끗까지 올랏다。그래서 문을 락밀치고들어가라하엿다。그러나 마침 그때 어듸서 종하는 소리가 나도 그만 주춤하고 픽 돌아섯다。

돌아서지 잠시후에야 그것이 바로 자기의가슴에서 나는 소리인줄을 알앗다。그만치 그순간에 그의가슴은 몹시 뛰엿든 것이다。

(그날밤에 하든 소릴 한번더 외여봐라 이약마야!)

하고 정념은 부지중 낫게웨첫다。뛰는 가슴과 함께 불끈쥐여진 두주먹이 감전된것가티 바르르 떨렷다。

원한에 타는 찻자가 다시식어지도록 오리가리 찌저주고시픈 아쥐고 그비기찬 배허블을 갈지독한 충동에 정념은 허더어리고 잇섯다。

여래 제손아귀에 든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제가 먼저 따버리든 정념이엇다。그러니만치 남자를 손에 넛는동시에 말정에는 어떠케 보기조케 롱대이를 처버릴까 하는것까지 함께 생각하든 정념이기도 하엿다。

그런데 그는 지금비루 남자의 발길아래 롱락되고 나뒹굴어버려진 그자신을 처음으로 발견하지안흐면 안되엇다。

그것은 얼쩍 예상하지 못하든일이다。그러니만치 그는 지금 청으로 저도모르든 새에사로잡혀 버렷든것이다。